

# “상임위장 다 갖겠다” 슈퍼여당의 엄포

### 원구성 법사위·예결위 쟁탈전 민주, 당선인 워크숍서 주장 통합당 ‘정부 견제론’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임위 모든 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고 밝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 여야가 마찰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원구성이 법정 기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내대표간 첫 협상에서부터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맞서자 원구성 안건의 분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는 꾀법에 관한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K-방역을 만들어냈듯 K-국회도 만들어보자.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



정 총리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하는데, 이를 넘으면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자칭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상임위를 11대 7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위

크숍에서 원구성 문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대 원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4·15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진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선편 등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을 처리하고 문제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을 내걸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각종 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법사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서 국회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한명숙 사건 공수처·국조 대상”

### 법원·검찰에 재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7일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재조사를 압박했다.

민주당 설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개입한 것으로 증거대한 범죄”라며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재조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 언론이 보도한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최수 H씨는 88번이나 소환됐지만,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

다”며 재조사 압박에 힘을 실었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가 검찰개혁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거 본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당 사무부총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첫 번째 시사’에서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분을 탄압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악용했던 사례로 민주진보 진영의 자존심과 연결된 사건”이라면서 검찰·법무부 차원의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통합당 재건 나서는 ‘김종인 비대위’

### 다음주부터 공식 업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후 42일 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키고 재건에 나선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앞서 원내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특강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총선참패의 원인 진단과 함께 당 쇄신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 관계자는 “다음 재보선과 대선 준비를 잘하자”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라며 “그동안 당이 낙선자와 원외 인사들을 소홀히 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임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업무를 시

작한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원과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남·노선을 재정비하기 위한 정경 정책 개편과 차세대 주자 발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9인 체제로 김 내정자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제외하면 초·재선 중 한명씩과 30·40세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초·재선 후보 중에선 김미애 당선인(조선)과 송연석 의원(재선)이 거론된다.

김 내정자는 보수진영의 대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해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개념과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해찬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 안돼”

### 민주 지도부 윤미향 의혹 입장... “윤, 입장 밝혀야” 내부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하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의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하는 등 정황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정지연의 30여년의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가야 한다는 당내 커지는 강경 여론에 차단막을 친 발언이다.

반면, 김해영 최고위원은 “타당 검찰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

에서 “침묵 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윤 당선인의 개인 전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는 윤 당선인의 불체포특권 행사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사안은 불체포특권을 작동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조만간 윤 당선인이 입장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21대 민주당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워크숍에 불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당선인

은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조사,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4%는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였으며 9.2%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 21대 국회 추진 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광주·전남 당선인 등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과제를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 국정과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워크숍 일정을 당초 1박 2일에서 하루로 줄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용빈 “5·18에 빛진 마음으로 의정활동”

### 광주 항쟁 최후 항전일 의미하는 527번 의원실 배정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당선인 원내부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날인 27일 “최후 항전일을 맞아 빛진자로 살아온 지난 40년을 성찰하며 21대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일 할 방은 국회의원회관 527호로 배정됐다.

이용빈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평소에 늘 가슴 아팠던 80년 5월27일을 다시 생각한다”며 “가두방송 소리에도 귀를 닫고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도청 앞 광장에서 인의 장벽을

치고 시민군을 지켰더라면, 역사의 가정법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광주의 시민군을 지킬 수도 있었을텐데... 그 날 나갔어야 하는데... 그 생

각을 지을 수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자신 님들의 남긴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무도 소외되지 않는 대동세상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b>의료시설</b>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